

# “순천만 갯벌·국가정원...의미가 명확해서 성공”

‘이태석리더십 스쿨 광주 강연 최덕림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총감독

### 순천만 습지 복원 등 추진...2011년 ‘제1호 지방행정의 달인’ “의미 찾는 순간 고통 사라져...학생들 가치있는 일 도전하길”

올해 처음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이태석리더십 스쿨’ (교장 구진성). 지난 2일 광주 동구 비움박물관에서 최덕림(67)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총감독이 4번째 연사로 나섰다. 최 감독은 ‘순천만 국가정원! Why&How 탄생되었는가?’라는 주제로 고등학생과 대학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펼쳤다.

최덕림 감독은 37년 공직생활 중 23년 이상 문화관광 분야에서 근무하며 순천만 습지를 복원하는 일부터 순천만갯벌 관광자원화, 2013년에는 순천만국가정원 조성 등을 추진했다. 2011년 제1호 지방행정의 달인에 선정됐으며 퇴직 이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 강의를 하고 있다.

“작은 도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바꾼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은 최 감독은 청중들에게 순천만 국가정원박람회의 탄생 배경과 진행 중 겪었던 에피소드 등을 들려주며 ‘의미’와 ‘혁신’을 강조했다.

“무슨 일이든 의미가 명확해야 성공합니다. 왜 순천만 습지를 복원했는지, 국가정원은 왜 만든 건지, ‘왜’ 했는지 그 의미가 중요해요. 2013년, 2023년 박람회 모두 의미가 명확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의미없는 고통은 없죠. 그 의미를 찾는 순간 고통은 사라집니다. 왜 해야 되는지 의미를 찾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새롭지만 가치가 있는 것을 ‘혁신’이라고 한 그는 연극으로 바뀐 민방위교육, 제1호 기적의 도서관 유지, 흑두루미를 위해 282개의 전봇대를 뽑았던 본인의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수많은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았던 방법 등을 들으며 참석자들은 금강증을 풀었다.

그는 “2013년 박람회가 끝난 후 다시 하려면 죽어도 못하겠다고 생각했다”며 “다시 총감독으로 일을 할 때 역시나 힘들었다”고 웃었다. 하루에 4만보씩 걸으며 발톱이 빠지는 건 일상이었다. 하지만 ‘보



최덕림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총감독.

상’이 아닌 ‘보람’을 위해 한 일이라며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때” 행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사업은 지자체장, 공무원, 시민이 협력할 때 성공한다”는 최 감독은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일을 추진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높아져야 완성도가 높다”고 강조하며 지방분권시대에는 지방 공무원들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MZ세대들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기준점과 방향성을 기성세대들이 알려줘야 해요. 기성세대 공무원들이 좀 더 혁신을 해야 합니다.”

최 감독은 남들이 기피하는 부서에서 주로 근무했지만 결국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해 왔다. 도심에 정원을 만들어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갯벌을 떠올리면 가장 적은 면적을 가진 순천만을 생각하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공무원은 개인의 가치 뿐만 아니라 공공의 가치도 높여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해 진로 결정을 앞둔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가치있는 일을 찾아 도전하라.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늘 고민하길 바란다”며 강의를 마쳤다.

한편 다양한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이태석 리더십 스쿨 광주’는 23일까지 매주 일요일(오후 2~5시) 비움 박물관에서 열린다.

【글·사진·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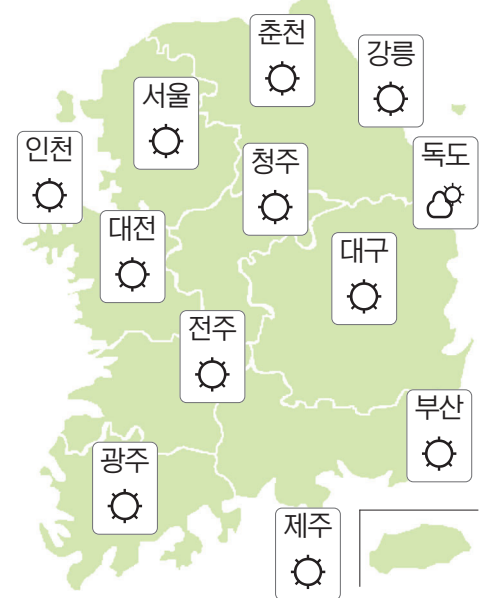
해돋이	05:18	달뜨기	03:13
해질	19:43	달지기	17:25

## 초여름 날씨

광주·전남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오르겠다.

광주	맑음	16/29	보성	구름많음	13/25
목포	구름많음	16/25	순천	맑음	15/27
여수	맑음	17/24	영광	맑음	14/25
나주	맑음	14/28	진도	구름많음	15/24
완도	구름많음	16/25	전주	맑음	16/28
구례	맑음	14/29	군산	맑음	15/26
강진	흐림	14/28	남원	맑음	14/28
해남	구름많음	14/26	흑산도	맑음	16/23
장성	맑음	13/28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파고 (m)	
		오전	오후
서해남부	앞바다	0.5	0.5
	면바다(북)	0.5~1.0	0.5~1.0
	면바다(남)	0.5~1.0	0.5~1.0
남해서부	앞바다	0.5	0.5
	면바다(서)	0.5~1.0	0.5~1.0
	면바다(동)	0.5~1.0	0.5~1.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여수	05:27	00:00	17:39	12:08
	00:59	07:10	13:12	19:49

## ◇생활지수

미세먼지	좋음
------	----

## ◇주간 날씨

5(수)	6(목)	7(금)
16/29	17/28	18/29
8(토)	9(일)	10(월)
18/28	18/28	19/28

# ‘성적’ 보다는 ‘추억’ 위해...온 가족 달렸다

### 김영식씨 부부, 두 아들과 ‘제9회 너릿재 옛길 마라톤 대회’ 참가

“장성한 아들과 함께 이런 추억을 꾸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있을까요.”

김영식(62)씨가 직장 동료들과 마라톤 동호회 활동을 하던 아들의 권유로 ‘제9회 너릿재 옛길 마라톤 대회’에 가족들과 처음 마라톤에 도전했다.

가족들을 마라톤 출발선으로 이끈 둘째 아들 현석(28)씨는 “동료들과 뛰다 보니 그 에너지가 너무 좋더라. 가족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함께 출전하자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적’이 아닌 ‘함께하는 순간’을 위해 너릿재 일원을 찾았다. 김씨는 “레이스 출발선은 같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달리는 이유는 모두 다를 것”이라며 “각자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가족이 모일 수 있는 매개가 잘 없다.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가족이 새로운 추억을 쌓게 돼 기분이 너무

좋고, 앞으로도 건강을 잘 유지해 아내, 아들과 함께 뛰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어머니 유숙기(59)씨 역시 “평소 산 타는 것을 좋아했지만 마라톤에 도전할 생각은 못했다”며 “8km는 비교적 부담 없는 거리기도 하고, 처음이 만큼 기록에 연연하지 않고 가볍게 달렸다”고 웃어 보였다.

대회 출전을 위해 너릿재를 처음 찾았다는 큰아들 시훈(34)씨는 “처음에는 평지가 아니라 격정했지만 녹음이 우거진 숲길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 거친 흙 위를 달리는 것이 더 상쾌하게 느껴졌다”고 언급했다.

이들 가족이 생각하는 마라톤의 매력은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쉽지



지난 2일 ‘너릿재 옛길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8km를 함께 완주한 김영식씨 가족. 왼쪽부터 차남 현석, 부인 유숙기씨, 김영식씨, 장남 시훈씨.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않다고 밝힌 김영식씨는 “맨몸 운동이라 돈도 안 들고,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이문화전당-일 아마구치 정보예술센터 협약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ACC)은 최근 ACC 회의실에서 일본 아마구치 정보예술센터와 융·복합 콘텐츠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CC 제공>

## 광주·전남혈액원-광주iN아이쿱협동조합 협약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원장 김동수·이하 혈액원)은 최근 광주iN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사장 김미애)과 환경보호 및 한혈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제공>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31 FAX 062-222-4938, 222-4918

## 알림

-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 ▲광주·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연제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의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

- 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 상담 062-654-3802.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지역장애인 성인 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휴대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 결혼가정 아동, 경제적 사정, 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3세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222-1095,1096.

## 모집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랑,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플랫폼창업희망자 교육생 모집=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수시모집, 5~6명 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플랫폼창업동호회 062-511-

- 0030.
-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 모집=사·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 ▲꿈을 꾸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글,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